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의 의미

성경말씀: 행11:22-26

지난 2달 이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곤 하였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모이는 교회들 그런 광고 끝에 나는 언제나 부탁을 한다. “좋은 사람들이 오셔야/가셔야 한다.” 이런 말이 나가니까 도대체 좋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의 의미>,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나와 성도들 모두 생각하는 시간

오늘은 창립 12주년 즈음 되는 날,

교회의 의미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즉 신약 교회를 말한다. 마16:18,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에 세워졌다. 신약 교회라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신약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 그 몸으로 들어가면 교회에 속하게 된다(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이런 교회는 전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베드로, 바울, 루터, 웨슬리, 에드워즈, 무디, 스펀전, 로이드 존스, 파이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한다.

성경에는 교회(church): 총 77회, 총 37회 총 114회

이 가운데 95% 이상은 다 지역 교회를 뜻한다.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에베소 교회). 사랑, 광주 은혜, 대구 스테반, 진주 영광, 대전 반석, 진해 등대 등 지역 교회

지역 교회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행11:26, 14:27; 행19:32; 고전 11:18).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우한 폐렴 코로나 19 사태로 대다수 교회들에 문제가 생겼다. 두 달 이상 모이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코로나 19 이후 30% 정도의 출석 인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800여 명 목회자 세미나, 인원 감소, 사역의 방향 전환, 헌금 감소 등 여러 문제

독립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물론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내가 여러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 성경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다. 인터넷 실황 예배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포들(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앞으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등도 준비해서 올리려고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방송실, 사무실 교육실 등을 150평을 증축하려고 한다. 방송실은 스튜디오, 소강당 개념, 중요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진행,

꼭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람, 그 다음 재물,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고 이런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기 바란다.

좋은 사람이란

성경의 하나님: 여러 속성, 그중 하나 좋으신 분. 영어로 Good(720), Goodness(51), 771회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 1장(7), 2장(5), 3장(3),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매우 좋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 사람도 매우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죄가 들어와서 그런 속성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징: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행2:47, 이것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good man), 총 13회

1.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시37:23).
2.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 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시112:5).
3.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잠12:2).
4.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잠13:22).
5.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잠14:14).
6.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지면 국가가 망한다(미7:2)
7. 아리마대 요셉(눅23:50), 선한 사람
8. 바나바(행11:24), 선한 사람,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바나바는 좋은 사람

1. 전도와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한 사람(행11:22-23)
2. 바울을 데려온 사람(11:26), 위대한 사도로 만든 사람
3.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한 사람(11:26)
4. 위로의 아들(4:36)
5. 교회를 위해 재물도 드린 사람(행4:37)

지역 교회를 하는 데 필요한 좋은 사람

지금까지 60년을 교회 생활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다. 특별히 30년 전부터 신약 교회에 눈을 뜨고 그런 교회를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참으로 교회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이성이 마비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인 가정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강조한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닢이 되면 배가 떠나지 못한다. 뜻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을 보라. 과거의 유대교에서 생활하던 것, 열심을 내던 것, 업적을 쌓은 것을 보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신약 교회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 상처를 입을 부모님, 가족 친구, 스승들, 또한 엄청난 핍박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약 교회를 알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구약 교회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함

좋은 사람의 특징

1.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신약 교회를 알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와 단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인생은 짧고 주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다 이해하고 좋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지금까지의 업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눅9:57-62)
2.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알던 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아니라고 확실히

- 말하면 고치겠습니다, 두 주 전 뉴질랜드 윤근채 목사님의 신앙 고백, 왜 안하는가? 정치 관점까지
3.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 특별히 목사에게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위선과 가식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없어야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
 4. 지역 교회를 해야 하니 자기가 속한 교회의 전반적인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문화나 철학을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점검을 통해 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미 설교 강해 등으로 다 올려놓았다. 필수 설교 40선 등
 5. 궁극적인 교회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동참하려는 사람.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표, 바른 성경, 바른 설교, 바른 사람,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국가, 이를 위해 특별히 미디어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 목회 중심이 아니라 설교/강해/교육 중심의 교회
 6. 교회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고민하는 사람, 이것은 참으로 좋은데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일을 하는 형태, 주인 의식 그러나 주인행세는 말자
 7.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선하게 도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특별히 목사의 목회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돕는 사람, 지역 교회의 선장은 목사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사모의 뇌 구조를 잘 이해하고 목회 철학 방향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다양한 형태 가능: 목사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장로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모이는 건물이 있는 교회, 집 교회, 우리 교회(혹은 다른 교회)가 이미 어떤 구조와 목표로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조와 목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다 좋은데 몇 가지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서 그런 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다. 즉 교회에 나갈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신사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교회에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면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예배당을 짓고 카펫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를 두고 분열함
 8. 나를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배운 사람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9. 교회와 일상생활이 별개가 되지 않고 삶 가운데 늘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무관심은 비판을 낳는다' 라는 말에 경험상 동의)
 10. 예의/매너를 갖춘 사람(위선과 가식 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표현할 줄 알며, 크리스천 언행을 하며 상식적인 품격을 갖추려 노력하는 사람, 인사할 줄 아는 사람

결국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가 수적으로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이 잘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 최종적인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 2개

빌1:20, 고후6:10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

어제 황선연 자매님이 만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비디오 큰 감동

영어,

1.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3.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상속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이루는 좋은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한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augh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Thou
with me Lord

당신이 나의 비전 되소서. 내 마음의 주님,
아무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순 없습니다.
주님만이 낮이나 밤에 경이롭게 빛을 비추시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에도 나의 가장 최고가 되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빛과 지혜가 되소서.
주님.. 당신은 나의 말씀이십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